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공연·전시·문학행사 ‘풍성’

22일 추모음악회·23일 오월창작가요 시립미술관 제주4·3 ‘강요배 특별展’도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시민과 함께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오월 문화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예술적 담론을 통해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18일 광주한빛교회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2일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민주화운동 추모음악회’가 열려 웅장하고 섬세한 선율로 오월의 영령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3일에는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제16회 전국오월창작가요제’를 개최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는 창작곡들로 시민과 함께하는 뜨거운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오월정신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민간 단체의 전시도 풍성하게 이어진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제7회 예술만장전-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을 선보인다.☞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는 오는 27일까지 전

주교 광주대학교구청과 무등갤러리 등에서 ‘2026 오월미술제’를 진행한다.

☞이강하기념사업회는 8월2일까지 이강미술관에서 ‘새로운 창작, 미래의 유산’ 전시를 통해 오월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조명한다.

공공 미술관들의 특별 기획전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9월27일까지 ‘2026 민주인권평화전-강요배시간을 품다’ 전시회를 연다.

강요배 작가는 제주4·3이라는 역사의 깊은 상흔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오월정신’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화가의 붓끝을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연결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는 7월 15일까지 ‘2026년 5·18기념 미디어아트 특별전’이 열려 첨단기술과 오월정신이 결합된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46주기 오월문학제’가 5월 한 달간 전일빌딩245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열사묘역 일원에서 열린다.

황인재 문화체육실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감을 되새기며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월정신이 문화예술의 웃을 일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선진형 어선 운항’ 교육생 모집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내달 2일까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4일 “어선어업인의 안전한 조업과 수산자원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선진형 어선 운항 교육’을 실시기로 하고 교육생을 6월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6월9일부터 3일간 어선어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교육 2일과 현장 교육 1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고용 관리, 선박 화재 예방과 어선 전자장비 운용,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연산수산물(MSC) 인증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꽃게 어획량 예측과 인공지능 기반 어선 운항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장 교육에선 선외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추진 장치인 선외기 급급조치 및 자가 정비 실무와 해양 안전 현장 체험 시간을 갖도록 해 안전한 어선 운항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시·군 해양수산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해양 환경과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어업인에게 신기술과 정책 등 정보 수집과 기술 습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어업인 양성을 위해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李大統領 전과기록 SNS 게시 사과”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이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SNS) 게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전남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혁신당 전남도당 최해국 대변인은 여수지역 혁신당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했던 전과기록을 게시했었다. /김재정기자



2026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식이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강기정 광주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권위주의·포퓰리즘 대항”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막

민주주의·인권 위기 속 도시 역할 논의 지방정부·시민사회 대응·국제 연대 모색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첫 참석

광주시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2026 세계 인권도시포럼’을 개막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인권 도시, 국제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전략 및 국제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인권 가치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도시 차원의 인권 정책과 세계 인권도시 간 협력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개회사에서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워낸 도시”라며 “광주는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정의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도시의 역할과 국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인권도시와

다양한 인권 주체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커 튀르크(Volker Turk)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주는 연대와 시민 참여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며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고 세계 시민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인권법 전문가인 튀르크 대표는 30여 년간 난민 보호와 국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세계적 권위자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은 ▲개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인권투어 등 6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28종 320여대...내달 23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14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320여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정보 접근과 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전남

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신청 기간은 6월23일까지다. 지원 신청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t4.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상담원 방문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10일 보급대상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급 품목은 총 128종으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 등 61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터치모니터·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용 의사소통보조기기·소리증폭기 등 48종이다.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보통신보조기기 233대를 보급하는 등 장애인의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